고전장편소설 속 여성들의 유머 담화와 웃음의 성격*

김문희 **

차례

1. 머리말
2. 고전장편소설 속 여성들의 유머 담화의 양상과 웃음 창출 방식
3. 고전장편소설 속 여성들의 웃음의 성격과 의의
4. 맺음말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고전장편소설 속에 나타나는 여성들의 유머 담화의 양상과 웃음을 창출하는 방식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조선시대 여성들의 웃음의 세계와 웃음의 성격을 탐구하는 것이다. 고전장편소설의 유머 담화는 그 내용과 웃음을 창출하는 방식에 따라 자기 과시와 합리화에 기반한 웃음, 이면적 부부관계 폭로에 기반한 웃음, 우월함과 고상함의 가치 격하에 기반한 웃음, 과도함과 부당함의 저항에 기반한 웃음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 이중 자기 과시와 합리화에 기반한 웃음은 양반가 여성들의 현실 자족적 인식에서 비롯되고 이것은 상생적 웃음의 성격을 띤다. 이 웃음은 양반가 여성들의 계층적 특수성에서 만들어지는 웃음의 세계이다. 이면적 부부관계 폭로에 기반한 웃음과 우월함과 고상함의 가치 격하에 기반한 웃음은 양반가 여성들의 삶에 대한 균형 감각과 유연한 태도에서 비롯되고 이것은 주변과 소통하는 연대적 웃음의 성격을 띤다. 이

* "이 연구는 아모레퍼시픽재단의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 경기대학교 융합교양학부 조교수

웃음은 양반가 여성들의 당위와 현실을 직시하는 삶의 태도가 만들어내는 웃음의 세계이다. 과도함과 부당함의 저항에 기반한 웃음은 아내와 자녀를 부당하게 대하는 가부장을 비판하고 유교 사회의 남성 중심주의가 강제하는 부당성을 비판하는 비판적 인식에서 비롯되고 이것은 저항적 웃음의 성격을 띤다. 이 웃음은 여성의 젠더적 차원의 인식이 작동하여 만들어내는 웃음의 세계이다.

핵심어 : 고전장편소설, 여성, 유머 담화, 웃음, 상생적 웃음, 연대적 웃음, 저항적 웃음

1. 머리말

시공간을 막론하고 웃음은 사회나 인간관계에서 흔하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그러나 조선시대에는 여성들이 드러내놓고 웃는 것을 부정적인 행동으로 인식하였다. 조선시대 여성의 규범서인 『내훈』이나 『여사서』 등에서는 여성들이 희노애락과 같은 감정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부덕(婦德)에 어긋나는 것이고 희노애락과 같은 감정을 절제하는 것이 여성의 올바른 태도라고 교육하였다. 그래서 조선시대에 농담, 유머, 해학 등과 같은 말하기와 이야기를 통해 파안대소(破顔大笑)하거나 박장대소(拍掌大笑)하는 것은 여성들의 웃음이 아니라 남성들의 웃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여성들도 우스갯소리와 유머를 나누며 웃었을 것이지만 조선시대 여성들의 유머나 웃음에 대한 실제 자료는 찾아보기 힘들다. 그렇다면 조선시대 여성들은 우스갯소리나 농담을 하지 않고 그들만의 웃음의 공간과 세계가 없었던 것일까?

고전장편소설을 읽노라면 여성들의 대화, 다수의 모임에서 나누는 한담, 희담, 논평, 동일 사건에 대한 여성들의 말하기 등과 같은 담화에서 여성들이 그들의 목소리로 유머나 우스개를 말하고 미소나 잠소, 파안대소, 박장대소하는 장면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고전장편소설 속

여성 인물들의 유머 담화와 웃음의 세계는 당대 여성들이 즐겼던 웃음의 공간과 세계를 모방하고 이것을 재현한 것이기 때문에 고전장편소설 속 인물들의 유머 담화는 현실에서 제거했던 여성들의 유머 담화와 웃음의 세계를 논의할 수 있는 단서가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런 시각에서 고전장편소설 속에 나타나는 여성 인물들의 유머 담화를 통해 조선시대 여성들이 공유했던 웃음의 세계와 웃음의 성격을 조명해보려고 한다.

선행연구 중 고전소설 속 여성들의 유머 담화와 웃음의 성격과 의의를 본격적으로 연구한 논문은 없다. 그러나 고전장편소설의 한담의 양상과 기능 연구[1]나 개별 작품인 『소현성록』[2], 『완월회맹연』[3], 『현씨양웅쌍린기』[4]를 대상으로 농담과 웃음의 기능과 미학, 희담의 작품 내적 의의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선행연구에서는 고전장편소설의 우스개나 해학적 대화를 통칭해 한담[5], 희담[6], 농담[7]이라고 명명하였고 개별 작품이나 몇 개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전반적 웃음의 기능과 의미에 주목하였다. 본 연구는 5편의 고전장편소설인 『유씨삼대록』, 『성현공숙렬기』, 『소현성록』,

---

1) 김문희, 「삼대록계 국문장편소설의 한담적 대화양상과 기능」, 『한국고전연구』 16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07, 127-158쪽.

2) 정창권, 「소현성록의 여성주의적 성격과 의의」, 『한국고전여성소설의 재발견』, 지식산업사, 2002, 110-112쪽; 서경희, 「소현성록의 '석파' 연구」, 『한국고전연구』 12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05, 69-98쪽; 이주영, 「소현성록의 농담 기제와 그 의의」, 『개신어문연구』 32집, 개신어문학회, 2010, 63-95쪽.

3) 한길연, 「완월회맹연의 여성 관련 희담(戱談) 연구 - 남성 희담꾼 '정염'과 여성 희담꾼 '상부인'간의 희담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5집,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2, 273-310쪽.

4) 정혜경, 「현씨양웅쌍린기의 서사적 힘: 웃음」, 『한민족문화연구』 37집, 한민족문화학회, 33-63쪽.

5) 김문희는 국문장편소설의 대화중에서 핵심적 사건의 전개와 관련이 없는 잉여적 대화인 가족 인물 평가하기, 과거사를 말하거나 일상사를 대화의 소재거리로 삼으며 가족 구성원의 웃음을 유발하는 것을 한담이라고 정의하였다. 김문희 앞의 논문, 128쪽.

6) 한길연은 『완월회맹연』 연구에서 가족 모임에서 분위기를 돋우는 우스갯소리를 희담이라고 명명하였다. 한길연, 앞의 논문, 275쪽.

7) 이주영은 『소현성록』을 연구 대상으로 하여 화자나 청자의 웃음을 유발하는 대화를 농담으로 통칭하였다. 이주영, 앞의 논문, 66쪽.

『현몽쌍룡기』, 『조씨삼대록』[8]을 연구 대상으로 하여 여성 인물들의 유머 담화의 양상과 웃음을 창출하는 방식을 통해 조선시대 여성들의 웃음의 성격과 의의를 논의하려고 한다. 이 5작품을 분석 대상으로 삼는 이유는 이 작품들이 고전장편소설 중에서 삼대록계 국문장편소설이라는 하위 계열로 묶을 수 있고 여성의 유머 담화가 풍부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2. 고전장편소설 속 여성들의 유머 담화 양상과 웃음 창출 방식

2.1. 유머 담화의 개념

표준국어대사전을 살펴보면 유머는 '남을 웃기는 행동'이라고 정의하고 유머를 우스개, 익살, 해학으로 순화해서 쓸 수 있다[9]고 설명하고 있다. 소설학 사전에서 유머는 해학, 골계, 익살 등으로 대응할 수 있고 일종의 우스꽝스러움(comic)의 현상을 가리키며 유머는 이웃에 대한 동정과 관용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냉소, 조소 등 적의와 경멸이 담긴 웃음과 구별된다[10]고 본다. 이처럼 유머(humour)와 익살(jokes)과 해학(wit)이 통용되거나 유사하게 사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구현정은 Long & Graesser에 의거해 유머, 익살, 해학의 개념을 구별하고 있는데 유머는 남을 웃기거나 즐겁게 해주는 말을 통칭하는 경우에 사용하고, 익살은 남을 즐겁게 하려고 고안된 말 가운데 앞뒤 문맥으로부터 독립적이며, 그 자체로 의미가 들어있어서 많은 대화에서 자유롭게 이야기될 수 있는 것이고, 해학은

8) 분석 대상으로 삼은 텍스트는 다음과 같다. 본문의 인용 쪽수도 이 텍스트에 의거한다. 한길연 외 역주, 『유씨삼대록』 1~4, 소명출판, 2010; 김기동 편, 「성현공숙렬기」, 『한국고전소설총서』, 태학사, 1983; 조혜란 외 역주, 『소현성록』 1~4, 소명출판, 2010; 김문희 외 역주, 『현몽쌍룡기』 1~3, 소명출판, 2010; 김문희 외 역주, 『조씨삼대록』 1~5, 소명출판, 2010.

9) "유머", <표준국어대사전>, http://stdweb2.korean.go.kr/search/List_dic.jsp(2017.6. 30)

10) 한용환, 『소설학사전』, 고려원, 1992, 324쪽.

남을 즐겁게 하려고 고안된 말 가운데 특수한 대화 상황에서만 나타나는 문맥 의존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11]고 하였다. 익살과 해학은 차이가 있고 특수한 쓰임이 있지만 유머는 익살과 해학을 아우를 수 있고 남을 웃기거나 즐겁게 해주는 말과 행동에 통칭해서 사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유머의 개념을 받아들여 유머는 여성 인물이 화자가 되어 청자나 좌중을 웃게 하는 것으로 상정할 것이다.

담화는 넓은 의미에서는 완전한 생각이나 사고를 전달할 수 있는 일련의 문장들의 연속체이다. 담화는 한 문장이 될 수도 있고, 한 권의 책이나 대화 전체가 될 수 있다.[12] 그러나 협의적 측면에서 담화는 구어와 관련된 텍스트를 지칭하고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구어적 언어형식을 가리키는 용어[13]로 사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협의적 측면의 담화의 개념을 받아들여 담화는 문장 차원의 단위로 행해지는 발화 형태인 대화, 말화기 등과 같은 언어적 발화로 볼 것이다. 따라서 유머 담화는 화자가 청자나 좌중의 웃음을 창출하는 대화나 말하기라고 할 수 있다.

고전장편소설에서는 여성 인물 간에, 혹은 여성 인물과 남성 인물이 대화하고 말하는 과정에서 청자나 좌중의 웃음이 빈발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고전장편소설의 유머 담화는 담화 이후에 청자나 좌중의 '함소(含笑)', '잠소(潛笑)', '미소(微笑)'나 '미미히 웃고', '환연히 웃고', '찬연히 웃고', '두긋겨 웃고'나 '대소(大笑)', '절도(絶倒)', '박장대소(拍掌大笑)'나 '냉소(冷笑)', '기소(譏笑)', '비소(誹笑)' 등의 반응이 나타나는데 이것을 웃음의 담화표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고전장편소설 속 유머 담화는 여성 인물들이 화자가 되어 청자나 좌중의 웃음을 창출하는 대화나 말하기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고전장편소설 속 여성들의 유머 담화를 여성 인물들이 화자가 되어 청

11) 구현정, 「유머 담화의 구조와 생성 기제」, 『한글』 248호, 한글학회, 2000, 162쪽.
12) 이칠영, 「담화분석의 특성」, 『언어연구』 2권, 한국현대언어학회, 1985, 163-164쪽.
13) 임규홍, 「국어 담화분석 연구의 현황과 전망」, 『우리말연구』 20집, 우리말글학회, 2007, 124쪽.

자와 좌중의 웃음을 창출하는 대화나 말하기로 정의했다면 그 범주는 여성과 여성의 대화나 말하기, 여성과 남성의 대화나 말하기로 1대1, 1대多, 多대多의 형태로 이루어진다고 정리해볼 수 있다. 유머 담화는 가문 여성들과 남성들이 모두 모이는 혼인 잔치나 아침, 점심, 저녁의 문안인사 모임, 급제 축하잔치, 가문 구성원의 잘못을 치죄하거나 호통 치는 자리, 여성들만의 모임에서 펼쳐진다.

2.2. 유머 담화의 양상과 웃음 창출 방식

고전장편소설의 유머 담화 양상과 웃음 창출 방식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유머 담화의 내용과 웃음을 창출하는 기제를 중심으로 5작품에 유사하게 나타나는 유머 담화 형태를 유형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유머 담화의 내용과 웃음 창출 기제의 유사점에 따라 자기 과시와 합리화에 기반한 웃음, 이면적 부부관계 폭로에 기반한 웃음, 우월함과 고상함의 가치 격하에 기반한 웃음, 과도함과 부당함의 저항에 기반한 웃음으로 유형화하여 논의하기로 한다.

2.2.1. 자기 과시와 합리화에 기반한 웃음

고전장편소설의 유머 담화 중 가장 많은 빈도로 나타나는 것이 혼인 잔치 모임이나 웃어른에게 문안 인사하는 모임, 집안 여성들의 모임에서 펼치지는 며느리, 자녀, 아내 품평과 자랑이다. 이러한 가문 구성원에 대한 품평과 자랑의 유머 담화는 여성들의 자기 과시와 자기 합리화의 말하기 때문에 웃음이 창출된다. 각 작품에서 추출되는 담화 상황은 다음처럼 정리해볼 수 있다.

작품명	담화 계기	담화 주체	담화 상황
『소현성록』 1권	소부 의란당의	석파, 이파,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자기

311-322쪽	여성들 모임	양부인(시어머니)과 소씨(딸), 화씨, 석씨(며느리)	소생의 자녀를 자랑하는 유머 담화
『소현성록』 3 권 282-286쪽	소부 어른에게 아침 문안하는 모임	소씨, 윤씨, 석파, 양부인	소씨와 윤씨가 상대방 며느리 논평, 석파가 화씨, 석씨 논평, 양부인이 소현성, 화씨, 석씨를 논평하는 유머 담화
『현몽쌍룡기』 1권 141-142쪽	조부 어른에게 점심 문안하는 모임	태부인(어머니)과 딸 조씨들	조부에 시집온 며느리 정씨에 대한 태부인의 칭찬과 딸 조씨들의 유머 담화
『현몽쌍룡기』 1권 151-155쪽	조부 조성과 양씨의 혼인잔치 모임	화파(서모)와 딸 조씨들	조부의 며느리인 정씨, 양씨의 미모와 덕에 대한 화파와 딸 조씨들의 유머 담화
『조씨삼대록』 1권 66-67쪽	조부 기현, 유현과 소씨, 정씨의 혼인잔치 모임	딸 조씨들과 아들 조성	조성의 며느리 정씨 자랑과 조씨의 양씨(조성의 아내) 자랑의 유머 담화
『조씨삼대록』1권 72-73쪽	조부의 유현과 이씨의 혼인잔치 모임	딸 조씨들과 아들 조성	조성의 며느리 이씨 자랑과 조씨의 양씨 자랑과 반격의 유머 담화
『조씨삼대록』1권 129쪽	조부의 유현과 이씨의 혼인잔치 모임	화파(서모)와 며느리 양씨, 정씨	화파의 양씨 칭찬과 양씨, 정씨 반격의 유머 담화
『조씨삼대록』 2권 113-116쪽	조부의 운현과 남씨의 혼인잔치 모임	화파와 딸 조씨들	화파의 정씨, 양씨, 조씨들 논평과 이에 반격하는 조씨들의 유머 담화
『조씨삼대록』 4권 422-424쪽	조부의 명윤과 여씨의 혼인잔치 모임	조무, 딸 조씨들, 조성, 조노공, 태부인	조무의 며느리 소씨, 한씨 자랑과 딸 조씨들의 정씨, 양씨 자랑, 조성, 조노공, 태부인이 각자의 손자 자랑의 유머 담화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혼인 잔치 모임, 웃어른에게 문안 인사하는 모임, 여성들의 모임에서 새로 시집오는 며느리, 기존의 며느리, 딸, 아들, 손자, 손자며느리 등을 품평하고 자랑하는 여성들의 유머 담화가 펼쳐진다. 대화를 주도하는 것은 주로 집안의 서모(庶母)나 딸들, 서매(庶妹), 태부인이다. 집안의 시어머니 뻘인 태부인과 서모는 자신의 며느리나 아들을 자랑하고, 딸들과 서매는 반대 입장에 서거나 다른 의견을

제시하면서 좌중의 웃음을 창출하는 경우가 많다. 가장 전형적인 2가지 사례를 통해 유머 담화 양상과 웃음 창출 기제를 살펴보기로 하자.

① 소부인이 크게 웃으며 말하였다. "어찌 화부인과 석부인은 논하지 않고 나만 사납다고 하는가?" 석파가 웃으며 말하였다. "화부인은 선량하고 온순하신데 기운이 가득하여 인정이 적으시고, 자색도 매화의 아담함을 선천적으로 타고나 계시나 소부인과 윤부인 두 분께는 미치지 못합니다. 우리 석부인은 버들 같은 눈썹과 눈같은 보조개, 구름 같은 귀밑과 가을 물결 같은 두 눈, 앵두 입술에 흰 이는 백옥으로 만든 듯하고, 맑고 깨끗하며 무르녹아 꽃과 달과 옥이 미치지 못할 자색을 갖추셨습니다. 또한 성질이 유순하시며 말씀이 엄숙하며 의논이 공정하여 사람들이 얼굴을 보아도 속을 알지 못하게 합니다. 품격이 승상과 같은데 처신이 화평하니 그 도량의 깊음이 소부인보다 나으십니다. 또 모든 일을 거리끼지 않으며 간섭하지 않아 태연히 풀어 버리시니 이는 선비나 군자의 행동입니다." 소부인과 윤부인이 웃으며 말하였다. "서모의 칭찬을 들으니 진실로 옳습니다. 우리는 제왕에게 비기시고 석부인은 선비나 군자라고 하였으니 비록 어떻게 이야기한다 해도 우리가 으뜸이 됩니다." 모두 크게 웃었다. <중략> 태부인이 천천히 말하였다. "자식을 칭찬하는 것은 옳지 않으나 석파의 말이 진실로 맞구나. 어진 석씨 며느리의 아름다움이 뛰어나지만 경의 봉황 같은 눈과 흰 연꽃을 꽂은 듯한 귀밑머리에 미치지는 못할 것일세. 또한 한갓 얼굴뿐 아니라 행실도 두텁네. 네가 이제 아들 열 명을 두었지만 모두 부족한 부분이 많아 말과 행실이 어른스럽지 못하니 군자의 정도(正道)를 얻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러므로 네가 비록 아들 열 명을 두었지만 내 아들 하나만 못하고 다섯 딸이 있으나 내 딸 하나의 허술함 없이 완벽한 계교와 뛰어난 행동만 못할 것이다." 승상이 소부인과 함께 사례하고 소씨 여러 형제들이 물러나 서로 웃으며 말하였다. "할머니가 오늘 숙모와 아버지를 칭찬하시고 우리를 나무라시니 비록 옳으신 말씀이지만 우리인들 어찌 군자가 되지 못하겠습니까?" 하고 또 웃었다. (『소현성록』 3권, 284-286쪽)

①은 『소현성록』의 소운명의 아내 이씨가 시집온 후 시부모와 태부인인 양부인에게 혼정신성의 예를 올리기 위해 온 가족이 모였을 때 소부의 여성들이 나누는 유머 담화이다. 이 유머 담화의 주체는 소부의 딸인 소부인과 윤부인, 서모 석파, 태부인이다. 이들은 소부의 가족 구성원이 모인 자리에서 소부의 며느리, 딸과 아들을 평가한다.

이 유머 담화에서 첫 번째 웃음은 석파와 소부인, 윤부인의 유머 담화에서 촉발된다. 서모 석파는 소부인이 자신과 윤부인의 흠을 말해달라고 하자 소부인과 윤부인의 장단점을 말하며 막상막하라는 평가를 내린다. 이에 윤부인이 "서모의 말씀을 들으니 언니는 진실로 한고조 같이 사납고 저는 어진 사람이 되었군요. 실로 헤아리기를 밝게 한 것이니 이는 언니의 사나움을 아시는 것입니다"라고 해석한다. 이와 같은 윤부인의 상대방 약점 들추기와 자기 장점 과시는 웃음을 만드는 포인트가 된다. 석파는 윤부인과 소부인의 어느 편에 서지 않고 두 사람을 평가했지만 윤부인이 석파의 말을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합리화하고 석파와 이파가 윤부인과 가세하여 소부인의 흠이 과장됨으로써 좌중의 웃음이 촉발된다.

두 번째 웃음은 석파, 태부인과 소부인, 윤부인의 유머 담화에서 촉발된다. 소부인이 석파에게 이번에는 소현성의 아내 화부인과 석부인에 대해 논하라고 하자 석파는 화부인을 평가하면서 소부인과 윤부인보다 한 수 아래지만 석부인은 미모와 덕이 모두 뛰어나며 '선비나 군자의 행동'을 하는 완벽한 인간형이라고 평가한다. 소부인과 윤부인은 석부인이 자기들보다 우위에 있다고 하자 "우리는 제왕에게 비기고 석부인은 선비나 군자라고 하였으니 비록 어떻게 이야기한다 해도 우리가 으뜸이 됩니다."라고 응수하면서 석부인보다 자기들이 우위에 있다고 말하자 좌중에 커다란 웃음이 터진다. 소부인과 윤부인이 자기에게 유리한대로 석파의 말을 해석하고 자기 장점을 과장적으로 말하기 때문에 좌중의 웃음이 유발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말을 듣고 있던 태부인이 제일 마지막에 "네가 비록 아들 열 명을 두었지만 내 아들 하나만 못하고 다섯 딸이 있으나 내 딸 하나의 허술함 없이 완벽한 계교와 뛰어난 행동만 못할 것이다"라고

하며 자기 소생인 소현성과 딸 소부인의 장점을 과시하면서 소부의 며느리, 딸에 대한 품평이 끝나고 좌중의 웃음을 불러일으킨다.

①의 예문에서는 소부인, 윤부인, 석파, 태부인이 자신, 자신의 며느리, 딸과 아들의 장점을 과시하고 상대방을 낮게 평가하는 가운데 웃음을 유발하는 유머 담화를 만들고 있다. 자기나 자기 소생의 아들, 며느리는 최대한 추켜세우고 상대방이나 상대방의 아들, 며느리는 적당히 낮추는 평가를 통해 담박한 웃음을 자아낸다. 소부인과 윤부인의 며느리 평가와 경쟁, 석파의 소부인과 윤부인 평가와 경쟁은 소부의 아들 소현성과 딸 소부인이 가장 우월하다는 태부인의 최종 평가로 지금까지의 경쟁 구도는 다함께 웃는 것으로 정리되고 가문의 단란한 분위기를 조성하게 되는 것이다. 양반가 여성들의 자기 과시와 합리화로 이끌어지는 유머 담화는 날카로운 대립없이 반대 의견을 말했던 화자와 청자, 좌중이 한바탕 웃는 분위기를 만든다.

『조씨삼대록』에도 이와 비슷한 유머 담화를 발견할 수 있다. 다음 예문은 조부의 운현과 남씨가 혼인하는 날 조부의 온 가족이 모여 새 며느리 남씨를 칭찬하고 뒤이어 시어머니 정숙렬, 양정렬과 조부의 딸들을 평가하는 부분이다.

> ② 조씨 등이 낭랑하게 웃으며 말하였다. “서모가 우리를 나무라고 정숙렬과 양정렬을 칭찬하지만 이에 보건대 공자와 맹자가 비록 성인이시나 반평생을 수레를 타고 돌아다니며 두 성인이 모두 피로하셨으니 어찌 역대의 제왕이 천하를 통일하는 공업에 비교하겠습니까? 정숙렬과 양정렬 두 아우를 비할 데 없는 성인군자라고 하고 우리는 나라를 창업하는 임금에 비기니 우리가 으뜸이고 두 아우는 우리 아래가 될 것입니다.” 여러 사람이 크게 웃고 진왕이 웃음을 머금고 말하였다. “석태상 누이를 제왕에 비교한 것은 서모가 잘못 본 것입니다.” 조씨 등이 낭랑하게 웃으며 말하였다. “네 말이 알만하구나. 우리들을 제왕에 비교하고 정씨 아우를 군자에 비교하니 이것을 애달파하며 우리를 깎아내리는구나. 네 부인은 높여 요순임금 같다고 하

여라." 이렇게 한가롭게 웃었다. (『조씨삼대록』 2권, 114-115쪽)

위 유머 담화의 주체는 서모인 화파와 조부의 딸들인 조씨들이다. 화파가 태부인 앞에서 조부의 며느리 정숙렬, 양정렬과 조부의 딸들인 석태상 부인, 유상서 부인, 소참정 부인의 장단점을 비교한다. 위 예문의 첫 번째 웃음 포인트는 화파가 조부의 세 딸을 각각 한나라 왕인 고조, 혜제, 소제에 비유하여 평가하는 척하면서도 사군자와 영웅의 자질이 있는 정숙렬과 양정렬이 더 낫다고 말하는 것이다. 화파는 조부의 세 딸을 역대 제왕에 비교하여 치켜세우는 듯하지만 자기와 더 가까운 정숙렬과 양정렬을 높이 평가하는 담화를 구사함으로써 좌중의 웃음을 불러일으킨다.

두 번째 웃음은 이런 화파의 말을 듣고 응수하는 조씨들의 말하기에서 나타난다. 조씨들은 "공자와 맹자가 비록 성인이시나 반평생을 수레를 타고 돌아다니며 두 성인이 모두 피로하셨으니 어찌 역대의 제왕이 천하를 통일하는 공업에 비교하겠습니까?"하며 자신들이 정숙렬과 양정렬보다 더 으뜸이라고 자평한다. 조씨들은 성인군자보다는 제왕이 더 훌륭하다는 논리로 정숙렬과 양정렬은 낮추고 자기를 더 과시한다. 조씨들은 화파의 평가를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여 상대방을 은근히 낮추고 자기를 과시하는 말하기로 웃음을 유발하고 있다.

세 번째 웃음은 진왕이 석태상 누이를 제왕에 비교하는 것을 문제삼자 조씨들이 자기의 논리대로 진왕을 공격하는 말하기에서 비롯된다. 조씨들은 "우리들을 제왕에 비교하고 정씨 아우를 군자에 비교하니 이것을 애달파하며 우리를 깎아내리는구나."하며 성인군자보다 제왕이 으뜸이라는 자기 과시적 태도를 일관적으로 견지하면서 좌중의 웃음을 불러일으킨다.

②의 예문에서 웃음을 유발하는 유머 담화의 주체는 조씨들이다. 이들은 자신들과 정숙렬과 양정렬을 견주는 평가에서 상대방은 낮추고 자기의 장점을 드러내는 말하기, 상대방의 평가를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는 합리화로 웃음을 창출한다. 이러한 웃음은 정숙렬이나 양정렬을 공격하여 이들이 가진 장점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인군자의 자질을 가진

정숙렬과 양정렬의 장점을 조부의 잔치에서 재확인하도록 하여 화기애애함을 드러낸다. 가족 구성원의 장단점을 논평하지만 경쟁 구도를 통해 어느 한쪽의 승리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한바탕 웃으면서 자기와 자기 자녀를 과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그러므로 새 며느리를 맞이하는 혼인 잔치에서 새 며느리와 조부의 며느리, 딸을 품평하면서 품평 대상자 모두를 빛나게 하는 웃음의 자리를 마련한다. 이것은 양반가의 다복한 일상과 여유로움에서 비롯되는 유머 담화이고 이러한 유머 담화는 자기 과시적이고 유희적인 웃음의 세계를 만들어낸다.

2.2.2. 이면적 부부관계 폭로에 기반한 웃음

고전장편소설의 유머 담화 중 두 번째로 많은 빈도로 나타나는 것이 실제와 다른 이면적 부부관계를 폭로함으로써 좌중의 웃음을 창출하는 것이다. 이것은 실제적 부부관계를 비틀기 하거나 전도하는 경우로 집안의 누이나 서모가 남자 주인공을 놀림으로써 한바탕 웃음을 만들어낸다. 각 작품에서 추출되는 담화 상황은 다음처럼 정리해볼 수 있다.

작품명	담화 계기	담화 주체	담화 상황
『유씨삼대록』 1권 401-402쪽	설영과 현영의 친정 방문과 오빠와의 만남	유부의 딸인 설영, 현영과 유세형, 유세창	설영의 남편 양생의 호기롭지 못함을 유세형과 유세창이 조롱하자 현영이 양생의 호색적 정체를 말하는 유머 담화
『소현성록』 1권 339-340쪽	양부 양현의 장원급제 잔치모임	소씨와 외사촌 오빠	잔치자리에서 아내를 뚫어지게 보는 외사촌 오빠를 소씨가 조롱하자 외사촌 오빠들이 응수하는 유머 담화
『현몽쌍룡기』 1권 160-163쪽	조부의 신정 가족 모임	딸 조씨들과 아들 조무, 조성	신정 가족 모임에서 조씨 누이들이 정씨, 양씨의 앵혈을 보고 조무, 조성이 부인에게 박대당하는 것이라고 조롱하자 조무와 조성이 응수하는 유머 담화

『현몽쌍룡기』 1권 250-252쪽	조무와 금선공주의 혼인 잔치 모임	딸 조씨(석학사 부인)와 조성	양씨에게 소원하게 대하는 조성을 조씨가 놀리고 조성이 반격하는 유머 담화
『현몽쌍룡기』 1권 254-257쪽	정씨의 처소에 머물고 있는 조무와 채빙의 대화	서매 채빙과 조무	조무가 신혼 첫날밤 금선공주의 처소로 가지 않자 채빙이 조무의 부부관계를 비꼬자 조무가 채빙 부부 문제를 거론하며 반격하는 유머 담화
『현몽쌍룡기』 1권 274-277쪽	조부의 태부인에게 문안인사하는 모임	딸 조씨들, 서매 채빙, 화파와 조무, 조성	조씨와 화파가 신혼 첫날밤에 금선공주의 처소에서 자지 않고 정씨의 처소로 간 조무의 행위를 놀리고, 서녀 채빙이 양씨 앞에서 무른 떡이 된다고 조성을 놀리는 유머 담화
『현몽쌍룡기』 2권 99쪽	조부 식구들의 모임	딸 조씨들, 서매 채빙과 조무	조무가 금선공주의 패악을 말하자 조씨들이 금선공주를 두둔하고 조무가 다시 조씨들을 공격하는 유머 담화
『조씨삼대록』 1권 66-67쪽	조부의 유현과 기현의 혼인날 잔치모임	딸 조씨들과 조무	조부의 기현, 유현의 혼인날 신랑의 길복을 입히는 자리에서 딸들인 조씨가 각자 남편 복을 자랑하자 부인의 유복함을 두고 조무와 석상서 부인 조씨와 실랑이하는 유머 담화

위의 표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주로 유머 담화의 주체는 집안의 누이나 서모와 집안의 아들이다. 누이나 서모는 아들 부부의 관계를 전도하거나 왜곡하여 실제와 다른 사실을 폭로하고 이런 폭로를 듣는 아들이 반격에 나서면서 유머 담화가 구성된다. 대표적인 2가지 사례를 통해 유머 담화 양상과 웃음 창출 기제를 살펴보기로 하자.

③ 소씨가 잇따라 웃으며 말하였다. “경이 사양하는 것도 옳고 숙부가 기리심도 맹랑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여러 사촌오라비들이 오늘 잔치 자리에서 염치를 다 잊고 자기 부인들을 유심히 바라보았는데, 생각건데, 혼인한 지 10여 년이나 되었으면서도 여럿이 모인 가운데에 새삼스럽게 바라보는

> 것이 이상하다고 여겼습니다. 모씨 형님의 말을 들으니 그 오라버니들이 본래 부인과 모여 있으면 그렇게 본다고 하니, 이는 틀림없이 요사이의 새로운 예법을 그대들이 행하는가 싶습니다." 자리의 사람들이 모두 크게 웃으며 말하였다. "누이가 우리를 놀리는군요. 한생도 단정치 않은데 어찌 누이의 말은 이리 시원스레 나옵니까?" 소씨가 낭랑히 웃으며 말하였다. "한생이 단정한지 그렇지 않은지는 내가 모릅니다. 다만 눈이 성하고 병들지 않았기에 한번 본 사람은 다시 유심히 보지 않습니다." 양생들이 모두 말하였다. "우리도 눈이 병들지 않았지만 아내를 볼 때마다 새삼스러워 눈을 때지 못합니다." 소씨가 말하였다. "그렇지 않아요. 부부란 것이 어찌 구태여 주야로 얼굴만 바라보는 것이겠습니까? 행실을 살펴보고 재주와 덕을 보아 공경하는 것입니다. 숙부와 숙모가 위에 계신데 무례하게 바라보아 아득하게 정신을 잃으니, 의심컨대 다른 사람의 눈에도 엄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사람같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라비들이 자기 처자를 바라보느라 겨를이 없어 부모가 쇠약하셨는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모두 손뼉을 치며 크게 웃으며 말하였다. "누이는 진실로 허무한 사람이구나. 사람의 없는 허물을 만들어 논박하는 것이 참혹하니 험한 성품이네. 화 · 석 두 제수는 저렇게 사나운 시누이를 어떻게 대하십니까?" 소씨가 낭랑하게 웃고, 화씨와 석씨 두 사람도 웃음을 머금었다. (『소현성록』 1권, 339-340쪽)

위의 예문은 『소현성록』의 소씨가 사촌 오빠들과 나누는 유머 담화이다. 양부인의 남동생 양상서의 아들 양현이 급제하자 양상서가 잔치를 열어 축하자리를 만든다. 이에 양부인,소현성과 두 며느리, 두 딸이 잔치에 참여하며 덕담을 나눈다. 그 자리에서 소씨는 아내를 바라보는 외사촌 오빠들을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공격의 포문을 열고 사촌 오빠들이 이것을 반격하면서 웃음을 불러일으킨다. 이 유머 담화의 주체는 소씨와 사촌 오빠들이다.

이 유머 담화의 첫 번째 웃음은 잔치 자리에서 사촌 오빠들이 아내를 바라보는 행동을 조롱하는 소씨의 말하기에서 비롯된다. 소씨는 "사촌오

라버니들이 오늘 잔치 자리에서 염치를 다 잊고 자기 부인들을 유심히 바라보았는데, 이는 요사이의 새로운 예법을 그대들이 행하는가 싶습니다."라고 말하자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크게 웃는다. 소씨는 사촌 오빠들의 행동을 부인에게 푹 빠진 모자란 처신으로 단정하고 웃음거리로 만드는 것이다. 이에 사촌 오빠들은 소씨의 남편 한생의 단정치 못함을 언급하며 반격하지만 소씨는 "한생은 눈이 성하고 병들지 않았기에 한 번 본 사람은 다시 유심히 보지 않는다"고 하며 사촌 오빠들을 제압한다.

좌중의 두 번째 박장대소는 부부의 도를 언급하며 이와 다른 사촌 오빠들을 조롱하는 소씨의 말하기에서 나타난다. 소씨는 부부의 도는 "행실을 살펴보고 재주와 덕을 보아 공경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사촌 오빠들은 부모 앞에서도 무례하게 아내를 바라보며 정신을 잃어 "자기 처자를 바라보느라 겨를이 없어 부모가 쇠약하셨는지도 모를 것 같다"고 비판한다. 이 때문에 사촌 오빠들과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한바탕 웃게 된다.

위의 유머 담화는 사촌 오빠들의 부부관계를 사실과 다르게 과장함으로써 사촌 오빠들을 웃음거리로 만든다. 잔치 자리에서 부인을 바라보는 사촌 오빠들의 행위는 양반가 부부관계의 올바른 도에서 벗어난 모자란 행동이라는 상식에 근거하여 사촌 오빠들의 열등함을 부각시켜 사촌 오빠들을 격하시키는 것이다. 소씨는 공식적 자리나 부모 앞에서도 아내만 바라보는 애처가의 면모를 사촌 오빠에게 덧씌움으로써 사촌 오빠를 조롱하여 좌중에 웃음을 만들고 있다.

다음은 『현몽쌍룡기』의 사례로 집안의 서모인 화씨와 서매 채빙이 조무와 조성의 부부관계를 폭로함으로써 주위의 웃음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 ④ 화씨가 웃으며 말하였다. "근간에는 한림은 죄가 없지만 예전에 어릴 때 완월정의 앵혈(鶯血) 사건 하나가 부인에게 발각되어 꾸지람을 들었구나." 조무가 빙그레 웃으며 말하였다. "저 정씨는 인정이 없는 여자입니다. 나를 1년이나 소박하였다가 마지못하여 겨우 한 명의 자식을 얻은 후에 나를 아주 내칠 뜻을 두고는 금선궁에서 떠나지 못하게 하고 아들을 보지 말

> 라고 하니 어찌 어릴 때의 완월정의 놀이를 마음에 두겠습니까?" 영씨가 웃으며 말하였다. "상공이 거짓으로 정소저를 흉보는 체하고 정소저의 맑은 덕을 지닌 기질을 자랑하는구나." 태부인과 조공 부부가 웃음을 머금고 그 문답하는 소리를 듣고 있었다. 위생의 처인 채빙이 조성을 향하여 말하였다. "상공이 저렇게 단정한 체하시나 어젯밤에 양소저를 대하면서는 무른 떡이 되었습니다." 여러 소저가 웃으면서 말하였다. "원래 아우를 보고 묻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이제 속 시원하게 물어보겠다. 저 흉한 놈이 거짓으로 단정한 체하며 아내를 박대한다고 우리가 염려하게 해놓고 부부의 처소에서는 꼴이 가관인 말을 많이 하였다. 양소저가 임신한 지 몇 달이 되었으며 무슨 일로 큰 바다가 뿡밭이 되어도 저버리지 않겠다고 빌었는지 자세하게 말하여라." (『현몽쌍룡기』 1권, 275-276쪽)

태부인에게 아침 문안 인사를 하는 가족 모임에서 서모 화씨와 서매 채빙은 조무와 조성이 부인을 무서워해서 쩔쩔 매는 공처가로 만들어 웃음거리로 만든다. 이 유머 담화의 주체는 화씨, 채빙과 조무와 조성인데, 화씨와 채빙이 조무와 조성의 부부관계를 폭로하고 조무와 조성이 이것을 반격하는 형태로 유머 담화가 진행된다.

금선공주에게 마음이 없는 조무는 금선공주와 첫날밤을 보내지 않고 새벽에 정씨 처소로 가서 정씨와 지내고 문안 인사에 늦게 들어오게 되는데 조씨 누이들과 서모 화씨가 이 사실을 알고 조무를 놀리게 된다. 조무가 자신의 아내 정씨가 자신을 꾸짖었기 때문에 아침 문안에 지각하게 되었다고 너스레를 떨자 이에 화씨가 곧바로 "어릴 때 완월정 앵혈 사건 하나가 부인에게 발각되어서 꾸지람을 들었구나"하면서 조무를 부인을 무서워하는 공처가로 만들어 웃음거리로 만든다. 화씨가 어린 시절 조무를 놀리려고 팔위에 앵혈을 그렸는데 조무는 앵혈을 지우기 위해 창기와 관계를 맺고 호기롭게 앵혈을 없앴다. 그러나 이 사건은 조무의 아버지 조공에게 발각되어 질책받지만 정씨는 조무의 앵혈사건에 개입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과 무관하다. 그런데 화씨는 사실과 다르게 앵혈사건 때문에

조무가 부인 정씨에게 타박을 받고 꾸중을 들었으며 조무가 부인을 두려워하는 공처가인 것처럼 말한다. 조무는 『현몽쌍룡기』에서 영웅적 자질을 가진 호탕한 인물이고, 정씨는 그런 조무에게 순종하는 아내인데 화씨는 이런 조무와 정씨의 부부관계를 전도하여 조무를 공처가로 만들어 격하시키고 좌중에 웃음을 선사한다.

조무뿐만 아니라 조성 역시 서매 채빙에 의해 양소저에게 쩔쩔매는 공처가라고 폭로됨으로써 웃음의 대상이 된다. 채빙은 조성도 "저렇게 단정한 체하시나 어젯밤에 양소저를 대하여 무른 떡이 되었다"고 말한다. 그러자 누이들이 뒤이어 조성 부부도 실제와 달리 소원한 것이 아니라 조성이 양소저에게 쩔쩔매는 행동을 한다는 것을 폭로한다. 누이들은 "저 흉한 놈이 거짓으로 단정한 체하며 아내를 박대한다고 우리가 염려하게 해놓고 부부의 처소에서는 꼴이 가관인 말을 많이 하였다. 무슨 일로 큰 바다가 뽕밭이 되어도 저버리지 않겠다고 빌었는지 말하라"고 다그친다. 이러한 누이들의 말하기는 양소저에게 냉랭하게 대하는 조성의 실제 부부관계와 다른 해석인 것이다. 채빙과 누이들은 평소 조성의 단엄하고 정대한 태도가 양소저와의 부부관계에서는 돌변해 공처가가 된다고 과장하여 좌중의 웃음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웃음은 채빙과 누이들이 조성의 정인군자다운 자질과 배치되는 이면적 부부관계를 과장하여 폭로함으로써 조성이 격하되는 순간 창출되는 것이다.

2.2.3. 고상함과 우월함의 가치 격하에 기반한 웃음

고전장편소설에서 좌중의 웃음을 불러일으키는 세 번째 유머 담화는 남녀 주인공의 고상함과 우월함을 격하하는 것이다. 이것은 집안의 누이나 서모가 여성 주인공과 남성 주인공을 비꼬거나 조롱함으써 남녀 주인공의 고상함과 우월함에 흠집을 내어 한바탕 웃음을 만들어낸다. 각 작품에서 추출되는 담화 상황은 다음처럼 정리해볼 수 있다.

작품명	담화 계기	담화 주체	담화 상황
『유씨삼대록』 4권 155-156쪽	유부의 이부인에게 소씨 집안 생일 잔치사항을 알리는 자리	유부 딸인 사참정 부인과 장씨	사참정 부인이 장씨의 지나친 검소함을 칭찬하는 척하면서 조롱하는 유머 담화
『성현공숙렬기』 23권 371-372쪽	태부인에게 문안하는 모임	임희린, 서매 진씨, 서모 소파와 임세린	임희린이 임세린의 호탕함을 비꼬고 진씨와 소파가 임세린을 더욱 조롱하는 유머 담화
『성현공숙렬기』 24권 432-433쪽	태부인에게 문안하는 모임	서모 소파와 임세린	임희린과 임세린이 입공하고 돌아와 태부인에게 문안하는 자리에서 소파가 임세린이 옥주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임세린을 조롱하는 유머 담화
『조씨삼대록』 2권 334-335	유현의 불고이취한 죄를 다스리기 위해 모인 자리	딸 조씨들과 조성	유현의 죄를 대신하여 그 어머니 양씨가 마당에서 무릎을 꿇는 행위를 조씨들이 조롱하자 조성이 조씨들과 실랑이하는 유머 담화

위의 표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주로 이 유머 담화는 집안의 누이, 서모와 아들과 시누이와 올케가 주체가 되어 대화를 나누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집안의 누이나 서모는 영웅호걸적 아들이나 요조숙녀형 올케를 격하시키고 아들과 올케가 이에 대응하는 유머 담화가 만들어진다. 『유씨삼대록』과 『성현공숙렬기』의 사례를 통해 유머 담화 양상과 웃음 창출 기제를 살펴보기로 하자.

⑤ 사참정 부인이 웃고 말하였다. “어머님은 어찌 매번 영주만 기특히 여기십니까? 제가 오늘 잔치자리에서 보건대 순씨 형님은 본래 추비한 사람이기에 시비할 것이 없지만 그 밖의 여덟 형님이 모든 젊은 여자들의 청춘홍안을 비웃으며 자리 가운데 빼어났으니 어찌 홀로 영주만 기특하겠습니까?” 장부인도 웃으며 말하였다. “어머니께서는 문창이 어린 나이로 활짝 피어 일세를 복종케 하는 것을 기뻐하시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부인께서는 젊을 때의 협기가 오히려 없어지지 않아 거짓으로 우리를 기리는 체하고

자신을 찬양하시는 것입니다." 참정부인이 낭랑하게 웃으며 말하였다. "장씨 형님의 아담하고 빼어남이 옛날 둘째 오라버니를 만나시던 날보다 더하시니 저희들이 빛을 잃습니다. 마음속으로 분해하면서 돌아왔으니 단장이나 예사롭게 하고 가셨으면 인물이 더 두드러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별무늬 없는 푸른 비단 치마와 보라색 저고리를 스스로 검소함을 자랑하시고 둘째 오라버니의 사치를 금하시는 뜻을 들추어 매우 뽐내시니 좌중에 칠보를 꾸민 자가 자신의 몸을 굽어보고 장씨 형님을 돌아보아 단장의 화려하고 아름다움을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지금 성스런 천자께서 위에 계시어 온 나라가 태평하니 마땅히 모든 만물이 풍요로울 것인데 장씨 형님께서는 무슨 까닭에 홀로 검소하게 행동하려고 하십니까? 장씨 형님은 오래지 않아 신신이 되어 저 백운을 타고 하늘로 올라갈 것이니 우리들과 같은 티끌세상의 탁한 무리를 비웃지 마십시오." 좌중이 포복절도하고 승상 부부 또한 크게 웃으며 말하였다. "네가 본래 사치할 마음이 있는 까닭에 장씨 며늘아기의 검소한 덕을 조롱하는구나." 장부인이 웃음을 머금고 말하였다. "제가 입에 말이 없는 것이 아니나 존전이라 말하기를 꺼린 것인데 어찌 사람을 대면하고 이렇듯 조롱하십니까?" (『유씨삼대록』 4권, 155-156쪽)

위의 예문은 『유씨삼대록』의 유세형의 아내 장부인과 유부의 딸 사참정 부인 유씨가 나누는 유머 담화이다. 유부의 며느리와 딸들이 소경문의 아버지 생신잔치에 참석하고 돌아와 감기 때문에 생일연에 참여하지 못한 이부인에게 잔치 상황을 말하고 있는데, 사참정 부인 유씨와 장부인의 담화가 좌중의 웃음을 유발한다.

이부인이 소경문의 아내이자 자신의 손녀인 문창군주를 칭찬하자 유씨는 문창군주뿐만 아니라 자기를 포함한 유부의 다른 여성들도 모두 아름다웠다고 항변한다. 장부인은 유씨의 이런 말은 "거짓으로 우리를 기리는 체하고 자신을 찬양하는 것"이라고 하며 유씨를 타박하자 유씨는 장부인을 집중적으로 공격한다. 유씨는 장부인에게 단장하지 않고 매우 검소하게 잔치에 참여했는데도 화려하게 단장한 자신들을 부끄럽게 한다고 장

부인에 대한 칭찬을 늘어놓는다. 겉으로는 화려한 치장을 뽐내는 다른 여성들에 비해 검소한 아름다움을 과시하는 장부인을 칭찬하는 척한다. 그러면서 “온 나라가 태평하니 마땅히 모든 만물이 풍요로울 것인데 장씨 형님께서는 홀로 검소하게 행동하려고 하십니까?”하고 장부인의 검소함을 본격적으로 문제삼는다. 또한 장부인에게 “신선이 되어 저 백운을 타고 하늘로 올라갈 것이니 우리들과 같은 티끌세상의 탁한 무리를 비웃지 마십시오”하며 장부인의 검소함을 웃음거리로 만든다. 좌중의 웃음은 유씨의 이러한 말하기에서 터진다. 유씨는 장부인의 아름다움을 칭찬하고 검소함을 극찬하는 척하다가 수수한 꾸밈과 옷차림으로 잔치에 참석한 장부인의 검소함이 상황에 맞지 않는 행동이라고 보고 장부인의 검소한 미덕을 조롱하고 있는 것이다.

여성의 검소함은 양반가 여성들에게 권유되는 덕목으로 장부인의 검소한 차림은 양반가 여성이 해야 할 합당한 처신일 수 있다. 장부인의 검소함과 수수한 차림은 시류에 물들지 않는 양반가 여성의 덕이며 고상함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유씨는 장부인의 검소함이 상황에 맞지 않는 지나친 처신이라고 하며 장부인의 검소함을 격하시키고 있다. 좌중도 유씨의 이러한 지적에 포복절도하며 동조의 반응을 보이게 된다.

다음은 『성현공숙렬기』의 임세린과 서매 진씨와 서모인 소파, 위부인이 유머 담화를 나누는 장면이다.

⑥ 진소 낭희 ᄌᆡ좌러니 부마의 거동과 원슈의 ᄌᆞ랑ᄒᆞ믈 보ᄆᆡ 간간졀도ᄒᆞ야 젼ᄌᆞ의 부마상공이 ᄆᆡ양 칭위 대댱부ᄒᆞ시고 귀운이 튱쳔ᄒᆞ야 우듀를 밧들 덧ᄒᆞ더니 금일로 보건ᄃᆡ 원슈상공은 진짓 대당부 ᄉᆞ업을 ᄒᆞ샤 금인을 ᄎᆞ고 비당츙텬과 명쟝경인이라 ᄒᆞ믄 원슈상공을 니ᄅᆞ미오 졍져와ᄂᆞᆫ 부마상공을 비ᄒᆞ미로소이다 됴졍의 ᄉᆞ름이 업셔 부마ᄀᆞᆺ튼 니로 대원슈를 쳔거ᄒᆞ오며 어ᄂᆡ ᄆᆡᆺ친 대원슈가 부마상공 손의 도라오리오 위부인이 금일 쳐음으로 화험의 우음이 열니여 냥인을 도라보며 원슈를 향ᄒᆞ야 긋치라 ᄒᆞ고 ᄀᆞᆯ오ᄃᆡ 셰린이 진소의 ᄒᆞᆫ 말의 ᄇᆡ속의 쇼원이 쒸노ᄂᆞᆫ지라 셰ᄋᆡ 어려셔 쳔ᄆᆡ를 다토

> 아 쥬먹질ᄒᆞ던 긔습이 날가 ᄒᆞ노라 원쉬 함쇼ᄒᆞ고 부마ᄂᆞᆫ 소희를 분분이 쑤지져 왈 내 미구의 원융대댱이 되어 츌ᄉᆞᄒᆞᄂᆞᆫ 날 바로 슉ᄌᆞ를 쑤지져 댱젼의 쑬니고 망언ᄒᆞᆫ 죄를 ᄃᆞ사려 오ᄂᆞᆯ날을 셜치ᄒᆞ리라 ᄑᆡ 머리를 흔들고 손을 져허 왈 아ᄉᆞ라라 져 우믈 밋 ᄀᆡ고리게 무ᄉᆞᆷ 원융대댱이 도라가리오 부인과 일좨 대쇼ᄒᆞ더라 (『성현공숙렬기』 23권 371-372쪽)

임희린이 서촉을 정벌하고 돌아와 취현전의 위부인에게 문안 인사를 드린다. 이 자리에는 아우 임세린과 서매 진씨, 서모인 소파 등이 모여있는데, 임희린, 진씨와 소파, 위부인이 임세린을 조롱하여 한바탕 웃음을 만들게 된다. 먼저 임희린은 아우 임세린이 임유린을 미워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며 임세린이 '아녀자의 마음'을 가졌다고 비꼰다. 이에 함께 있던 진씨와 소파가 원수 임희린은 대장부라고 극찬하면서 부마 임세린에게는 "우물 안 개구리는 부마 상공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조정에 사람이 없어 부마 같은 이를 대원수로 천거하오며 어느 미친 대원수가 부마 상공 손에 돌아오겠습니까?"라고 말하며 임세린을 마음껏 깎아내린다. 진씨와 소파의 임세린 조롱이 좌중의 웃음을 촉발한다. 이 말을 들은 위부인은 임세린을 위로하는 듯하면서 "세린이 진씨와 소파가 한 말을 듣고 뱃속에 원한이 뛰놀 것이다. 세린이 어려서부터 천한 누이와 다투며 주먹질하던 습관이 다시 날 것 같구나" 하면서 또 한 번 임세린을 놀린다. 임세린은 다음에 대장군이 되어 오늘의 수모를 갚겠다고 분해하지만 이 말을 들은 소파는 임세린을 또 한번 조롱한다. 소파는 손을 저으며 "아서라, 저 우물밑 개구리에게 무슨 원융대장 직책이 돌아가리오"라고 말하자 좌중은 모두 크게 웃는다.

이 유머 담화는 임희린, 진씨, 소파, 위부인이 가세하여 임세린을 조롱하고 격하하여 웃음을 창출한다. 임세린은 『성현공숙렬기』에서 호탕한 남아로 임부의 중요한 일원이지만 이러한 호탕함은 온 가족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웃음거리가 되기도 한다. 임희린은 정인군자다운 면모를 지녔다면 임세린은 영웅호걸다운 면모를 지닌 인물이다. 고전장편소설에서

남성 주인공은 이러한 두 자질을 지닌 인물형으로 양분되고 이러한 자질은 주인공의 우월함을 만드는 중요한 요소이다. 이 유머 담화에서는 서매, 서모, 할머니의 3번의 임세린 조롱하기로 임세린의 호탕한 남성성은 흠집이 나고 임세린의 우월함은 열등함으로 격하된다. 웃음은 서매, 서모, 할머니의 임세린 조롱과 격하적 유머 담화에 좌중이 공감하고 동조하면서 유발되는 것이다.

2.2.4. 과도함과 부당함의 저항에 기반한 웃음

고전장편소설에서 좌중의 웃음을 창출하는 네 번째 유머 담화는 과도한 남성 인물의 행위를 비판하는 것이다. 이것은 아내를 과도하게 박대하거나 아들을 오해해 벌주고 치죄하는 남성 인물을 대상으로 그의 과거사를 들추어내 좌중의 웃음을 유발하는 것이다. 각 작품에서 추출되는 담화 상황은 다음처럼 정리해볼 수 있다.

작품명	담화 계기	담화 주체	담화 상황
『유씨삼대록』 4권 142-143쪽	유부의 후원 만화원에서 온 가족이 봄경치를 완상하는 자리	영릉후, 진공과 태부인 이씨, 유부의 3명의 딸들	유부 사람들이 소경문의 박대에도 문창군주가 소경문을 화평하게 대하는 것을 칭찬하자 태부인 이씨가 유세형의 과거사를 말하며 온가족이 웃는 유머 담화
『현몽쌍룡기』 1권 373-374쪽	양씨가 조부를 떠나면서 태부인에게 인사하는 자리	딸 조씨들과 조성	이별을 슬퍼하는 양씨를 조성이 흘겨보자 조씨가 조성의 과도함을 질책하는 유머 담화
『조씨삼대록』 1권 275-277쪽	태부인의 처소 태원전에서 가족들이 모인 자리	딸 조씨들과 유현	유현이 정씨와 강씨를 조부에서 내쫓으면서 공평하게 하지 않은 것을 조씨들이 조롱하자 유현이 그 이유를 해명하는 유머 담화
『조씨삼대록』 5권 378-379쪽	조부의 가족 모임	정씨, 연비, 딸 조씨들과 유현	유현이 아들 명현을 오해해 30대로 치죄하자 정씨, 연비, 고모인 조씨가 유현의 과거 잘못을 들추어 공격하고 유현이 변명하는 유머 담화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유머 담화는 집안의 어머니, 누이와 집안의 아들이 주체가 되는데 어머니나 누이들이 집안의 아들을 비판함으로써 좌중의 웃음이 유발되는 경우이다. 『유씨삼대록』과 『조씨삼대록』의 사례를 통해 유머 담화 양상과 웃음 창출 기제를 살펴보기로 하자.

> ⑦ 이부인이 말하였다. "너희들은 이렇게 말하지 말거라. 문창의 이런 일이 더욱 진양공주를 닮았구나. 이전에 둘째 아이가 광폭한 노기로 철로 만든 여의주를 들어 공주를 쳐서 옥비녀와 칠보가 부서지고 공주의 난초와 같은 약한 몸은 얼음과 옥보다 더 섬약하니 어찌 상하지 않았겠느냐마는 공주가 안색이 태연자약하여 온화한 말씀으로 승상과 나를 깨우쳐 남편의 죄를 벗겨 내었다. 오늘 어찌 문창이 소서방을 원망하지 않은 것을 괴이하게 여기겠느냐?" 그러자 양학사 부인 등 세 자매가 낭랑히 웃고 말하였다. "어머님의 밝으신 말씀을 들으니 진양공주의 봄바람 같은 행동과 둘째 오라버니의 과격하신 행동을 눈앞에서 보는 듯합니다." 좌중이 일시에 웃으며 말하였다. (『유씨삼대록』 4권, 143쪽)

유부의 존당 이부인이 유부의 자손을 거느리고 후원 만화원에서 봄경치를 구경한다. 모든 자식과 며느리들이 즐겁게 담소하는데, 유부의 딸인 문창군주가 남편 소경문에게 심한 박대를 당하고도 남편을 한탄하지 않고 소경문을 화평하게 대하는 것을 보고 유부의 사람들이 문창군주를 괴이하게 여기기도 한다. 이런 담소를 나누는 도중에 유세형의 어머니 이부인은 문창군주를 박대한 소경문의 행위와 과거에 진양공주를 박대한 유세형의 행위를 견줌으로써 좌중의 웃음을 유발한다. 이부인은 "이전에 둘째 아이가 광폭한 노기로 철로 만든 여의주를 들어 공주를 쳐서 옥비녀와 칠보가 부서지고 공주의 난초와 같은 약한 몸은 얼음과 옥보다 더 섬약하니 어찌 상하지 않았겠느냐마는 공주가 안색이 태연자약하여 온화한 말씀으로 승상과 나를 깨우쳐 남편의 죄를 벗겨 내었다"고 말한다. 이부인은 문창군주가 소경문을 원망하지 않는 것을 괴이하게 여길 일이 아니

고 실상 이보다 심한 경우가 유세형에게 있었다고 유세형이 진양공주를 부당하게 박대했던 일을 매우 소상하게 좌중에 전한다. 이 때문에 좌중에 웃음이 터진다. 이에 유부의 세 딸이 이부인의 말에 맞장구를 치면서 좌중에는 또 한번의 웃음이 일어난다.

이부인과 누이들의 합세에 유세형은 "시속의 세력을 좇고 미색을 좋아하고 약속을 저버린 무리"인 소경문과 "소년 혈기에 과도한 행위였지만 이후에 뜻을 세운" 자기는 다르다고 변명한다. 그러나 유부의 딸들과 성의백 유세기까지 함께 합세하여 유세형의 지난 날의 잘못은 온 가족 앞에 드러난다.

유세형은 젊은 시절 장씨의 아름다움에 매혹되어 어질고 현명한 진양공주를 아내로 맞이하고서도 박대한다. 심정적 냉대뿐만 아니라 폭력에 가까운 육체적 박대를 감행하며 진양공주를 멀리하지만 진양공주는 이런 일로 남편 유세형이 부모에게 벌받지 않도록 시부모에게 유세형의 선처를 부탁하기도 한다. 실상 진양공주의 인내와 노력으로 유세형은 진양공주의 어질고 현명한 아름다움에 다시 눈을 뜨고 온전한 부부가 된다.『유씨삼대록』의 전반부에는 유세형이 진양공주에게 행하는 과도한 처사와 박대가 잘 드러나 있다.

그러나『유씨삼대록』의 후반부에서는 유세형은 유부에서 근엄한 남편, 아버지로서 자리잡고 있다. 유세형이 과거에 저지른 잘못을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이부인의 유머 담화로 인해 지난날의 유세형의 부적절하고 과도한 행위가 환기되고 유세형의 근엄한 가부장의 자질은 균열된다. 이부인의 유머 담화로 유세형의 과도한 행위가 좌중에 드러나고 이에 유부의 딸들과 유세기가 합세하여 함께 유세형을 조롱하면서 유세형이 진양공주에게 부당하게 대했던 과오가 다시 회자되고 비판되는 것이다.

다음은『조씨삼대록』의 유현이 아들 명천이 부모가 허락하지 않은 여자와 간통하려 했다고 오해해 30대를 때린 후 가족 모임에서 나누는 유머 담화이다.

⑧ 정숙렬이 웃으며 말하였다. "너는 길에서 여덟 명의 창기들을 데려오

고 또 아버지의 명령 없이 재췻감을 데려오는 제멋대로인 행동을 무수히 해 놓고 자식의 일에 이르러서는 지나친 말을 하느냐? 명천이와 관련된 일이 헛일이긴 했지만 비록 실제 그렇다한들 자식을 네 마음대로 죽일 수 있느냐?" 평제왕이 웃으며 대답했다. "큰어머님의 말씀이 오히려 저를 잘 모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 일들이 외람된 일은 맞습니다만 실로 예에 어긋난 것도 아니고 법이 아닌 것도 아니었습니다. 부모님께 여쭙지도 않고 아내를 취한 죄는 있지만 이번 명천이와 관련된 일과는 다릅니다. 규수와 사사롭게 간통하러 다니며 임금과 아버지가 준 물건을 가져다 예물로 쓰고 또 아녀자의 패물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다니요. 몸이 삼정승의 지위에 있으면서 주색에 빠져 거칠고 막돼먹은 것이 이 지경이라면 어찌 놀랍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매우 가까운 친족 간에 변이 있는 것이라면 살려 둘 마음이 있겠습니까?" 연비가 웃으며 말하였다. "우리는 네가 이처럼 엉큼하고 모진 줄 몰랐다. 비록 그 일이 잘못되었다 한들 차마 자식을 죽일 수 있겠느냐? 그때 너는 죄없는 자식을 심하게 때리고 마음이 편하냐?" 평제왕 유현이 흔쾌히 웃으며 대답했다. "이제 뉘우치게 되고 안타까운 마음이 적지 않지만, 이것도 다 명천이의 액운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석부인이 웃으며 말했다. "그러면 너도 네 아들을 때린 죄로 맞아라." (『조씨삼대록』 5권, 379-380쪽)

명천의 아버지 유현은 명천을 곤경에 빠트리려는 경씨의 편지를 보고 명천을 오해해 30대를 때리고 자식을 제대로 훈육하고 집안의 기강을 세우려고 한다. 그러나 이후에 경씨의 계략이 드러나고 명천에게 잘못이 없다는 것이 밝혀지자 유현의 큰어머니 정숙렬과 연비, 고모 조씨들이 유현의 과거사를 들추어내 좌중의 웃음을 불러일으킨다.

이 유머 담화의 첫 번째 웃음은 아들 명천의 잘못을 단죄하려고 했다는 유현의 말을 듣고 큰어머니 정숙렬이 유현의 과거 잘못을 들추는 발화에서 드러난다. 정숙렬은 "너는 길에서 여덟 명의 창기들을 데려오고 또 아버지의 명령도 없이 재췻감을 데려오는 제멋대로인 행동을 무수히

해놓고 자식의 일에 이르러는 지나친 말을 하느냐"고 하면서 젊은 시절 유현이 저지른 비행을 사람들 앞에서 들추어낸다. 유현은 아버지 조성 몰래 길에서 만난 여덟 명의 창기를 집에 데려다놓고 즐기다 혼쭐이 나고, 불고이취하고 밖에서 데려온 이씨와 혼인하기 위해 조성을 속인다. 이러한 사실이 아버지 조성에게 발각되어 유현은 치죄를 당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유현의 과거 잘못이 정숙렬에 의해 드러나면서 명천의 잘못을 다스리는 유현의 행위는 정당성을 잃게 되면서 좌중의 웃음이 드러난다. 이에 연비는 "우리는 네가 이처럼 엉큼하고 모진 줄 몰랐다. 비록 그 일이 잘못되었다 한들 차마 자식을 죽일 수 있겠느냐? 그때 너는 죄없는 자식을 심하게 때리고 마음이 편하냐?"고 하면서 유현을 질책한다. 유현은 안타깝지만 이것도 명천의 액운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변명하자 고모인 석부인이 "그러면 너도 네 아들을 때린 죄로 맞아라."라고 하면서 좌중에 또 한번의 웃음을 불러일으킨다.

평제왕 유현은 현재 조부를 다스리는 위엄있는 가부장이다. 그러나 아들 명천의 죄를 치죄하는 가운데 유현의 위엄있는 아버지의 모습은 정숙렬에 의해 유현의 과거 잘못이 공개됨으로써 부당하고 잘못된 판단을 하는 아버지로 폄하된다. 일의 전말과 상황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엄하기만 한 유현의 처결은 큰어머니 정숙렬, 연비, 석부인의 유현의 과거사 폭로로 좌중에 웃음거리가 된다. 이 유머 담화에서 웃음은 아들의 잘못을 과도하게 처리하는 유현의 행동에 대해 심리적 저항을 느끼며 집안의 어머니와 고모들이 함께 비난하고 좌중도 이에 동조함으로써 유발되는 것이다.

3. 고전장편소설 속 여성들의 웃음의 성격과 의의

3.1. 현실 자족적 인식과 상생적 웃음

앞에서 살펴본 '자기 과시와 합리화에 기반한 웃음'은 혼인 잔치나 혼

정신성과 같은 온 가족이 모이는 자리에서 여성들이 주체가 되어 집안의 며느리나 딸, 자녀를 평가하면서 좌중을 화기애애하게 만든다. '자기 과시와 합리화에 기반한 웃음'은 담화 참가자가 상대방의 평가를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자기 장점을 과시하기 위해 상대방을 낮추는 말하기 방식에서 창출된다. 그러나 이 웃음은 비하의 웃음이 아니라 상대방의 장점을 환기하면서 서로 웃는 상호 교호적 웃음이며 상생적 웃음이다.

'자기 과시와 합리화에 기반한 웃음'은 대부분 새 며느리가 들어오는 혼인이나 새 며느리가 집안 어른에게 인사하는 자리에서 펼쳐지는 유머 담화에서 나타난다. 고전장편소설에서 가장 빈도가 많은 유머 담화가 바로 이 유형이다. 혼인은 고전장편소설에서 매우 중요한 서사적 사건인데 혼인은 가문 내외적 확대를 가능하게 하고 가문내에서는 세대를 누적하는 계기가 된다. 또한 서사 내적으로 혼인은 새로운 사건을 만드는 계기가 되기고 하고 어떤 사건의 결과가 되기도 한다. 고전장편소설에서 혼인의 서사적 기능의 중요성 만큼 조선시대 양반가 여성들에게도 혼인은 중요한 관심사였을 것이다.

혼인 잔치나 새 며느리가 집안어른에게 인사하는 자리는 새 며느리가 처음 시가 식구에게 선을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시가 식구의 이목이 새 며느리에게 집중된다. 새 며느리의 미모, 덕, 행동, 성품은 모든 가문 구성원이 궁금해 하는 관심사일 것이다. 또한 기존 여성들의 입장에서도 새 며느리의 영입은 시가내 여성들의 관계에서 새로운 변화를 만드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새 며느리가 들어옴으로써 먼저 시집온 며느리, 같은 항렬의 동서, 시누이, 시어머니도 새 며느리와 새로운 관계를 맺고 관계를 조율해야 하기 때문에 여성들의 관계에서 새판 짜기가 필요해지는 것이다. 새 며느리 품평, 기존의 며느리, 딸, 시어머니 품평이 혼인을 전후로 해서 여성들의 유머 담화로 고전장편소설에서 대거 나타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새 며느리가 들어옴으로써 가문내 가족 구성원의 입지, 존재감, 정체성이 다시 정리되고 확인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유머 담화가 마련되는 것이다. 곧 새 며느리의 영입과 관련된 가족 구성원간의

관계 조율과 재배치의 일환으로 이 유머 담화가 빈발하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자기 과시와 합리화에 기반한 웃음'을 창출하는 유머 담화의 목적은 다른 가족 구성원의 단점을 들추어내고 자기가 최고의 일인이 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녀와 가족 구성원의 장점을 더욱 누적적으로 열거하고 앞 다투어 최고 중에 최고의 자녀를 자랑하는 데 있다. 새 며느리를 포함하여 기존의 가족 구성원의 됨됨이를 유머 담화로 품평함으로써 새 며느리는 우호적으로 가문내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고 기존 가족 구성원의 됨됨이와 장점을 환기시키면서 새 며느리와 동렬의 며느리와 시누이, 시어머니의 가족 관계와 위치를 정렬하고 재배치하는 것이다.

그런데 새 며느리 품평과 동렬의 며느리 품평, 딸과 아들, 그리고 시어머니 품평이 시종일관 웃음을 창출하는 화기애애한 유머 담화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양반가 여성들이 새 가족 구성원을 영입하고 가족 구성원의 관계 조율과 재배치를 할 때도 날선 경쟁과 배타적 태도보다는 우호적이고 여유로운 태도를 취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새 며느리에 대한 칭찬을 하고 다른 며느리를 품평하면서 장단점을 말하고 나의 장점을 과시하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유희적 수다를 중첩하면서 여성들의 정감적이고 우호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는 것이다. 이러한 여성들의 정감적이고 우호적인 분위기는 바로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정신적으로 평안한 양반가 여성들의 일상생활에서 비롯되는 여유로움이라고 할 수 있다. 일상생활의 풍요와 평안이 여유롭고 우호적인 양반가 여성들의 웃음의 세계를 만들게 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이 유머 담화에서 만들어지는 웃음은 갈등과 반감이 아니라 주위와 화합하는 상생적 성격을 띤다.

이러한 웃음은 양반가 여성들의 여유로운 일상과 편안한 생활에서 드러나는 자기 만족적 인식에서 창출되는 웃음이다. 양반가 여성들이 평안한 현실에 만족하고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면서 자기 삶에 만족하고 현재의 복록을 만끽하고자 하는 현실 자족적 인식이 자기 과시와 합리화의 유머 담화를 구사하게 하고 주변과 화합하고 상생하는 웃음의 세계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처럼 고전장편소설의 여성들의 현실 자족적 인식에

서 나오는 상생적 웃음은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평안한 일상을 살고 있는 양반가 여성들의 계층적 특수성에서 만들어지는 웃음 문화라고 할 수 있다. 양반과 사대부 계층이라는 계층적 특수성이 일상을 유희적으로 즐기면서 나를 뽐내면서도 타인과 공존하고 화합하는 상생적 웃음의 세계를 구축하게 하는 것이다.

3.2. 삶에 대한 균형적 인식과 연대적 웃음

앞에서 살펴본 고전장편소설의 유머 담화에 의해 창출되는 '이면적 부부관계 폭로에 기반한 웃음'과 '고상함과 우월함의 가치 격하에 기반한 웃음'은 공통적으로 흠결 없는 남성 주인공과 여성 주인공의 이미지를 흠집내는 데서 비롯되는 웃음이다. 때문에 이 웃음에는 웃음 대상자에 대한 격하적 태도가 개입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면적 부부관계 폭로에 기반한 웃음'은 대부분 고전장편소설의 남자 주인공의 부부관계를 누이나 서모가 유머 담화의 중심 화제로 삼고 이 부부관계를 실제와 다르게 왜곡하여 좌중의 웃음을 불러일으킨다. 영웅호걸형 남성 인물과 대인군자형 남성 인물을 애처가나 공처가로 만들거나 강퍅하고 드센 아내에게 박대당하는 남편이 되게 하고 잠시 동안 열등한 인간으로 끌어내려 화자와 청자가 함께 웃는 것이다. 유머 담화의 화자뿐만 아니라 이러한 유머 담화를 듣고 있는 청중도 남성 인물의 격하를 심정적으로 동조하면서 지켜보고 있는 것이다.

'고상함과 우월함의 가치 격하에 기반한 웃음'은 누이, 서매, 서모가 요조숙녀형 여성 인물의 고상함과 영웅호걸형 남성 인물의 호탕함을 조롱하여 여성 인물의 검소함, 지나친 예의나 영웅호걸형 남성 인물의 우월함과 같은 당위적 가치를 잠시 동안 부정하는 데서 창출된다. 유머 담화의 화자인 누이와 서모, 그리고 청중도 이러한 격하에 공감하고 함께 웃음으로써 좌중은 웃음의 공동체로 연대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남성 인물의 규범적 부부관계를 전도하거나 남녀 주인공의

고상함과 우월함의 가치를 격하하는 것을 고전장편소설에서 유머 담화의 단골 레퍼토리로 삼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규범적 부부관계나 고상함과 우월함의 가치 이면에 존재하는 현실적 부부관계나 가치를 간파하는 여성들의 균형적 삶의 감각과 인식이 작동하기 때문이다.

양반가의 규범적이고 전형화된 부부관계는 남편이 우위에서 아내를 이끌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거나 부부가 올바른 행동과 덕으로 서로 공경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규범적이고 전형화된 부부관계는 당위적인 것이지 대부분의 양반가 부부가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애처가, 공처가, 강퍅한 아내와 그런 아내에게 잡도리를 당하는 남편도 양반가 부부관계에서 현실적으로 존재한다. 고전장편소설의 유머 담화는 이런 현실적 부부관계나 부부상[14]을 드러내어 양반가 부부관계의 또 다른 모습으로 위치시킨다. 청자나 좌중의 참여자들도 현실에서 이런 부부의 모습을 목도하기 때문에 이 유머 담화에 공감하고 동조하여 함께 웃을 수 있는 것이다. 남녀 주인공의 고상함과 우월함을 격하시키는 유머 담화 역시 현실과 동떨어진 고상함과 우월함을 문제삼는다. 양반가 여성들의 검소함은 칭송되어야 할 행동이지만 양반가 여성들의 현실은 검소함과 소박함보다는 사치스러움과 화려함을 선호했을 것이다. 양반가 여성들의 화려한 꾸밈과 사치가 유행했다는 당대의 현실적 정황을 볼 때[15]

14) 필자는 여성들의 유머 담화로만 한정하지 않았지만 삼대록계 국문장편소설에서 부부간의 다양한 문제를 드러내는 한담은 사대부가의 또 다른 현실적 부부관계를 보여주는 현실태이고 이것은 삶의 리얼리티를 재현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문희, 앞의 논문, 156쪽.

15) 16~18세기 조선의 양반가 여성의 행장, 가장, 묘지명, 묘비명에는 양반가 여성들의 생애와 생활의 단면을 살펴볼 수 있는 기록이 있는데, 여기에는 검소하고 소박한 차림을 했던 여성들의 모습을 칭찬하는 기록들이 있다. 전의 이씨, 창녕 조씨, 영일 정씨, 은진 송씨, 덕수 이씨 등의 기사에서는 이들의 검소함과 소박함을 칭찬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은 역으로 당대 많은 양반가 여성들이 복장, 치장, 꾸밈에서 화려함을 추구했다는 것을 반증한다. 당대 많은 양반가 여성들이 무늬 있는 아름다운 비단 옷을 입었고, 진한 화장을 하고 금과 은으로 장식한 비녀와 귀걸이 등을 하였으며 높은 가발을 착용하였다고 한다. 김미란, 『조선시대 양반가 여성의 생애와 풍속』, 평민사, 2016, 269-273쪽.

검소함의 덕은 현실에서는 고리타분한 가치일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고전장편소설의 유머 담화는 양반가의 당위적 부부관계와 남녀 주인공의 고상함과 우월함을 격하하여 현실에서 일어나는 부부관계와 현실에서 추구되는 삶의 경향을 제시함으로써 삶에 대한 균형 감각을 드러내어 좌중과 소통하고 연대하는 웃음의 세계를 만들게 된다.

규범적이고 전형화된 가치나 삶의 양태를 모범적으로 행하고 말할 때 유머와 웃음은 만들어지지 않는다. 규범적이고 전형화된 가치와 삶의 양태를 비틀거나 이와 다른 현실적 맥락을 기습적으로 제시할 때 청중과 좌중의 기대가 깨지고 웃음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면적 부부관계를 폭로하거나 고상함과 우월함을 격하시키면서 좌중의 웃음을 창출하는 유머 담화는 한쪽으로 치우친 정형화된 삶의 방식이나 태도를 흔들어 현실에 존재하는 다양한 삶의 방식과 태도를 불어넣는다. 이것은 화자와 청자, 좌중이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을 흔들고 당위적 가치에 매몰되어 있는 사고에 새로운 전환을 가능하게 한다. 우월한 집단인 완벽한 남녀 주인공의 부부관계나 고상함과 우월함을 격하하는 가운데 열등한 존재로 잠시 떨어진 주인공을 발견하고 현실적 삶의 모습과 가치를 확인하면서 화자나 청중은 다함께 한바탕 웃거나 포복절도하는 웃음 공동체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화자와 청중은 웃음의 대상에 대해 날카로운 펀치를 날려 그들이 지닌 가치를 완전히 전도시키지는 못한다. 화자나 청중은 남녀 주인공을 완전히 희화화하지 않기 때문에 남녀 주인공이 부정적인 인물로 인식되지 않고 일회적으로 좌중이 한 번 웃고 마는 상황이 만들어진다. 이 웃음은 대상에 대한 격하적 태도에서 출발하지만 이 격하는 판소리계 소설이나 풍자소설에서 나타나는 대상에 대한 완전한 격하와 가치 전복에서 드러나는 풍자와 해학과 같은 웃음과는 다른 성격을 지닌다. 화자가 담화의 대상에 대해 공격의 시선을 가지기보다는 담화 대상이 가진 규범적 부부관계와 고상함과 우월함을 비틀어보고 다시 원상태로 복귀시킨다는 점에서 이 웃음은 전복적 성격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원상

복귀의 탄성력을 가진다. 담화 대상에 대해 날카롭게 펀치를 날리는 것이 아니라 당위적 규범과 가치를 부드럽게 가격하기 때문에 화자와 좌중, 그리고 격하 대상자도 함께 웃을 수 있는 것이다.

이면적 부부관계를 폭로하거나 고상함과 우월함을 가치 격하하는 유머 담화는 양반가 여성들이 당위적 규범과 가치가 우위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실제에 있어서는 현실적 삶의 양태와 가치가 보다 가깝게 있다는 인식을 표현해내는 것이다. 이 유머 담화는 당위적 가치와 현실적 가치 속에서 살아가는 조선시대 여성들의 처세적 태도에서 나오는 이중적 복화술로 이것은 양반가 여성들의 삶에 대한 균형 감각과 유연한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이 웃음은 양반가 여성들의 당위와 현실을 직시하는 삶의 태도가 만들어내는 웃음의 세계라고 할 수 있다.

3.3. 현실 비판적 인식과 저항적 웃음

앞의 네 번째 유머 담화에서 창출되는 '과도함과 부당함의 저항에 기반한 웃음'은 요조숙녀형 아내를 박대하는 남편과 뛰어난 아들을 과도하게 벌주고 다스리는 아버지를 집안 여성들이 비판하고 좌중의 동조를 얻으면서 유발된다. 융통성 없이 아내와 자녀를 부당하고 과도하게 대우하는 가부장의 일련의 행위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가부장을 웃음거리로 삼는 이 유머 담화는 양반가 여성들의 현실 비판적 인식에서 기인한다.

고전장편소설에서는 아내를 박대하여 부부 갈등이 발생하고 부부가 우여곡절을 겪고 난후 완전한 부부관계를 이루는 것을 중요한 사건으로 삼는 경우가 많다. 남편이 아내를 박대하는 이유는 악인이나 첩의 계략에 때문에 아내를 오해하여 박대하거나, 아내의 순종하지 않는 태도나 냉정한 태도 때문에 박대하기도 하며, 박색인 아내의 외모와 악한 성품 때문에 아내를 박대하기도 한다. 이중 아내의 악한 성품과 성격은 일반적 인간관계에서도 거리를 두고 소원하게 대할 수 있는 사안이지만 그 이외의 다른 이유는 남편과 아내, 남성과 여성의 권력과 힘의 구도에서 남편이

더 강한 권력과 힘을 가진 가부장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이런 이유로 아내를 박대하는 남편의 폭력은 현실에서도 일어나고 많은 여성들이 부당하게 당하는 고통일 수 있다. 마찬가지로 아들의 잘못을 다스리는 아버지의 과도한 처결 역시도 아들과 아버지의 권력과 힘의 구도에서 아버지가 아들의 우위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고전장편소설에서도 아버지가 아들의 잘못을 알고 이를 다스리고 처결하는 사건은 매우 빈번하게 나타난다. 상식선에서 판단할 때 아들의 잘못이 심각한 경우도 있고 아들의 잘못이 심하지 않거나 아버지의 오해 때문에 아들을 치죄하는 경우도 있다.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과도한 치죄는 아들과 어머니의 입장에서는 부당한 고통일 수 있는 것이다.

고전장편소설의 여성들의 유머 담화는 아내를 오해하거나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는다거나 냉정하다는 이유로 아내를 박대하거나 박색인 아내의 외모 때문에 아내를 박대하는 남편을 겨냥하여 남편의 과거사를 조롱과 비판의 대상으로 삼는다. 또한 뛰어난 아들을 오해하거나 아들의 경미한 잘못을 빌미로 삼아 아들을 엄격하게 훈육하고 다스리는 아버지의 처결을 조롱과 비판의 대상으로 삼는다. 현재는 집안을 잘 다스리는 가부장이지만 과거에는 어리석고 혼미한 남편이었으며, 현재의 아들보다 더 심각한 일탈과 방종을 일삼은 아버지라는 사실이 어머니, 누이 등의 입을 통해 밝혀짐으로써 좌중에 웃음이 일어나고 가부장의 권위는 약화되는 것이다.

고전장편소설의 '과도함과 부당함의 저항에 기반한 웃음'을 창출하는 유머 담화는 부당한 현실을 바라보고 인식하면서 여성 자신들의 처지를 생각하게 되고 아내와 자녀를 부당하게 대하는 가부장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는 말하기이다. 그렇기 때문에 화자와 다른 여성들이 한 목소리를 내어 가부장의 행위를 부정적으로 말하고 조롱하며 좌중의 공감이 일어나는 것이다. 여기서 여성들의 현실 비판적 인식과 저항적 웃음이 드러나게 된다. 이 웃음은 담화 대상에 대한 비판적이고 부정적 인식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냉소와 조롱의 성격을 띤다.

무엇보다 이 유머 담화에서는 조롱하고 비판하는 화자는 여성이고 조롱과 비판의 대상이 되는 청자는 남성인데 이 비판에 대해 남성이 변명하면 할수록 더 많은 여성들이 공조하여 남성을 비판하고 여성의 목소리가 승한 양상으로 구성된다. 이것은 올바르지 않은 가부장에 대한 양반가 여성들의 비판을 드러내고 이 비판은 한 명의 남성에게로만 향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과 아버지로서 올바르게 행동하지 못하는 부정적 가부장 전체에게로 향한다. 그래서 이 유머 담화에서 창출되는 웃음은 유교 사회의 남성 중심주의가 강제하는 부당성에 대한 여성들의 저항적 성격을 띠고 남성 중심적인 유교사회에서 여성이라는 젠더적 차원의 인식이 만들어내는 비판적 웃음이 된다.

그러나 고전장편소설에서는 가부장의 '과도함과 부당함의 저항에 기반한 웃음'을 만들어내는 유머 담화는 여타의 유머 담화보다 그리 풍부하지 않은 편이다. 실제 양반가 여성들이 말하고 웃음을 나누는 자리에서는 올바르지 않은 남편과 아버지에 대한 저항과 비판은 적지 않았을 터이지만 고전장편소설 속에는 풍부하게 재현되지 않는다. 만약 가부장의 부당함에 저항하고 비판하는 유머 담화가 풍부하다면 고전장편소설은 당대 유교적 가부장제에 저항하고 비판하는 양반가 여성들의 공론의 장이 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조선시대 양반가 여성들은 유교적 교육과 가부장제를 공고히 하는 분위기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가부장의 부당함에 저항하고 비판하는 언술은 고전장편소설 속에 그대로 노출되기 쉽지 않았을 것이고 선택적으로만 얼마간의 유머 담화로만 산입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고전장편소설의 여성들의 유머 담화도 현실에서 느끼는 여성들의 부당함과 불합리를 모두 재현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닌다. 그러나 고전장편소설의 과도함과 부당함의 저항에 기반한 웃음을 창출하는 유머 담화는 조선시대 여성이라는 젠더적 차원의 인식이 만들어내는 가부장제에 대한 여성들의 비판과 저항적 탈출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4. 맺음말

고전장편소설의 유머 담화는 여성 인물들이 주체가 되어 웃음을 창출하고 공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선시대 양반가 여성들의 웃음의 세계와 웃음의 성격을 들여다볼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된다. 조선시대 여성들이 나누었던 우스갯소리나 유머에 대한 공식적인 자료는 남아있지 않지만 우리는 고전장편소설의 여성들의 유머 담화를 통해 조선시대 양반가 여성들의 웃음의 세계와 웃음의 성격을 조망할 수 있었다.

고전장편소설의 여성의 유머 담화는 그 내용과 웃음을 창출하는 방식에 따라 자기 과시와 합리화에 기반한 웃음, 이면적 부부관계 폭로에 기반한 웃음, 우월함과 고상함의 가치 격하에 기반한 웃음, 과도함과 부당함의 저항에 기반한 웃음으로 대별할 수 있다. 이중 자기 과시와 합리화에 기반한 웃음은 양반가 여성들의 현실 자족적 인식에서 만들어지고 이것은 상생적 웃음의 성격을 띤다. 이 웃음은 평안하고 여유로운 일상을 살고 있는 양반가 여성들의 계층적 특수성에서 만들어지는 웃음의 세계라고 할 수 있다. 이면적 부부관계 폭로에 기반한 웃음과 우월함과 고상함의 가치 격하에 기반한 웃음은 양반가 여성들의 삶에 대한 균형 감각과 유연한 태도에서 만들어지고 이것은 주변과 소통하는 연대적 웃음의 성격을 띤다. 이 웃음은 양반가 여성들의 당위와 현실을 직시하는 삶의 태도가 만들어내는 웃음의 세계라고 할 수 있다. 과도함과 부당함의 저항에 기반한 웃음은 아내와 자녀를 부당하게 대하는 가부장을 비판하고 유교 사회의 남성 중심주의가 강제하는 부당성을 비판하는 비판적 인식에서 만들어지고 이것은 저항적 웃음의 성격을 띤다. 이 웃음은 조선시대 여성의 젠더적 차원의 인식이 작동하여 만들어내는 웃음의 세계이다.

그간 고전장편소설에 나타나는 여성의 말하기, 쓰기 등 여성들의 언어생활과 관련된 연구는 꽤 이루어졌지만 여성들이 주조하는 웃음의 세계와 성격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편이었다. 고전장편소설에 재현된 여성들의 유머 담화와 웃음이 조선시대 여성들의 웃음의 세계를 모두 대변할

수 없지만 본 연구는 조선시대 양반가 여성들이 나눈 유머 담화의 양상과 웃음 창출 방식, 그리고 웃음의 성격과 의의를 제시함으로써 조선시대 여성들의 웃음의 세계와 문화의 일단을 조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참고문헌

1. 자료

김문희 외 역주,『현몽쌍룡기』1~3, 소명출판, 2010(<현몽쌍룡기>, 장서각본 18권 18책)

김문희 외 역주,『조씨삼대록』1~5, 소명출판, 2010(<조씨삼대록>, 서강대본 40권 40책)

조혜란 외 역주,『소현성록』1~4, 소명출판, 2010(<소현성록>, 이화여대본 15권 15책)

한길연 외 역주,『유씨삼대록』1~4, 소명출판, 2010(<유씨삼대록>, 국립중앙도서관본 20권 20책)

김기동 편,「성현공숙렬기」,『한국고전소설총서』1983, 태학사.(<성현공숙렬기>, 규장각본, 25권 25책)

2. 단행본

김미란,『조선시대 양반가 여성의 생애와 풍속』, 평민사, 2016, 269-273쪽.

앙리베르그송, 정연복 옮김,『웃음』, 세계사, 2007, 10-120쪽.

정창권,『한국고전여성소설의 재발견』, 지식산업사, 2002, 110-112쪽.

한용환,『소설학사전』, 고려원, 1992, 324쪽.

“유머”, <표준국어대사전>, http:/stdweb2.korean.go.kr/search/List_dic.jsp.

3. 논문

구현정,「유머 담화의 구조와 생성 기제」,『한글』248호, 한글학회, 2000,

159-184쪽.
김문희, 「삼대록계 국문장편소설의 한담적 대화 양상과 기능」, 『한국고전연구』 16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09, 127-158쪽.
류정월, 「문헌설화에서 '투기하는 부인(妬婦)'의 형상화와 의미」,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4집,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2, 43-77쪽.
서경희, 「<소현성록>의 '석파' 연구」, 『한국고전연구』 12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05, 69-98쪽.
이주영, 「<소현성록>의 농담 기제와 그 의의」, 『개신어문연구』 32집, 개신어문학회, 2010, 63-95쪽.
이칠영, 「담화분석의 특성」, 『언어연구』 2권, 한국현대언어학회, 1985, 163-172쪽.
임규홍, 「국어 담화분석 연구의 현황과 전망」, 『우리말연구』 20집, 우리말글학회, 2007, 111-144쪽.
정선희, 「장편가문소설의 놀이 문화의 양상과 기능」, 『한민족문화연구』 36집, 한민족문화학회, 2011, 181-209쪽.
정혜경, 「현씨양웅쌍린기의 서사적 힘: 웃음」, 『한민족문화연구』 37집, 한민족문화학회, 2011, 33-63쪽.
한길연, 「완월회맹연의 여성 관련 희담 연구-남성 희담꾼 '정염'과 여성 희담꾼 '상부인'간의 희담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5집,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2, 273-310쪽.

Abstract

Women's Humorous Discourse and Features of Laughter in Korean Classical Long Novels

Kim, Mun-Hee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patterns of women's humorous discourse and the way of creating laughter in Korean classical long novels and explore the world of laughter and the nature of laughter in women who lived during Joseon Dynasty. The humorous discourse of Korean classical long novels is characterized into several kinds according to the ways of creating laughter: laughter based on self-exaggeration and rationalization, laughter based on the revealing of inside couple relationship, laughter based on the downgraded superiority and nobility, and laughter based on the resistance against the excessive and unfairness. Among them, the laughter based on self-exaggeration and rationalization are made from the realistic self-awareness of the women of the noble birth and they have the character of a win-win laughter. The laughter based on the exposure of couple's inside story and the laughter based on the lowering of the value of the superiority and the nobility are made from the balanced sense of life and the flexible attitude of women's life in noble society, and they have the character of solidarity communicating with the surroundings. The laughter based on the resistance against the excessive and unfairness is made from a critical awareness that criticizes the patriarch who treats his wife and children unjustly and criticizes

the injustice imposed by the masculinity of Confucian society, and it has the character of resistive laughter.

Key words : Korean classical long novels, women, humorous discourse, win-win laughter, solidarity laughter, resistive laughter

■ 본 논문은 2017년 7월 13일에 접수되어 2017년 7월 20일부터 8월 10일까지 소정의 심사를 거쳐 2017년 8월 14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